釜山宗親會 癸巳年 新年賀禮會

▲부산종친회 신년하례회에서 권길상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종친회(權吉相 會長)는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 30분에 연산교차로 부산은행 9층 해암 부폐에서 회원 및 일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사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權正守 副會長의 사회로 상례행사를 마치고 상읍례로 서로 마주보고 癸巳년 새해 복많이 받기를 기원 하였다.

사무국장의 개별 임원소개와 각구 단체회장, 각모임 단체회장 등 소개가 있은 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임진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을 드리며 지난해 광주 전국 체육대회와 6월3일 부산종친회 정기총회시 많은 참석과 12월2일 안동 시조 추향에 대거 참여함으로서 부산종친회의 위상을 더 높인점에 경의를 표하였으며 금년5월 정기총회를 계기로 임기를 만료함에 따라 후임회장 임기까지도 탄탄대로가 되기를 빌면서 모든 종친님들 사업번창과 가정마다 행복을 기원 하였다.

이에 앞서 사상구 국회의원을 지내고 주일대사를 역임하였으며 박근혜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權哲賢족의 인사소개로 그간의 수고와 주일 대사시절의 이야기를 하였다.

격려사로 권영한고문(權永漢 顧問)은 권길상 회장의 그간의 노고를 칭찬하고 대종원의 대외활동 일본 중국 미국 등 종친회 모임을 갖게 된 경위와 성황을 소상하게 이야기 하였다.

2.1회 권영(權永)회장은 권영한 고문에 대하여 낭중공 이단 및 활동사항을 칭찬하였다. 김희정(金姬廷) 국회의원의 축전 낭독이 있었고 식사에 들러가 건배제의로 첫째잔은 종친회장 둘째잔은 권경욱 자문위원 셋째잔은 명예회장 순으로 하였으며 여흥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전부 마치고 권임호부회장(權壬鎬)이 타올 150장, 권오상(權五尙) 운영위원이 뚝배기 155개 개의 선물을 협찬하여 선물하였다.

(권재혁사무국장)

마포종친회 제22차 정총 및 송년회

권승구 회장 연임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76, 안동, 부정공파 34世)는 지난 12월27일 오후7시,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우가촌회관에서 남녀족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정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일부총무(고척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승구회장이 권오복 대종원편집위원, 권영석 서울산악회장 등의 내빈소개를 했으며, 인사말을 통해서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준 여려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임진년 한 해 본회 발전에 성원과 격려 등을 고맙게 생각하며 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좀 더 젊은 청년회원 증가에 더욱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권오복 대종원편집위원, 권영석 서울산악회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총무의 결산보고, 권경탁, 순용 감사를 대신해 권혁구부회장이 감사보고를 했다. 회의에 들어가 지난해 11월20일 마포임원단회의에서 의결된 회장단 전원 유임을 승인했다.

한편 권승구회장은 신공덕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친족애로 다정다감(多情多感)한 회장직을 4년째 하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안동종친회 안동성소병원 방문

▲안동성소병원에서 안동종친회 회장단, 안동성소병원 간부급이 단체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종친회(회장 권재주)는 지난 12월17일 오전 11시 안동성소병원을 방문해 10층 '은파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우성삼 안동성소병원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권영대 안동성소병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성소병원이 한동안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괄목할만한 시스템과 각종의 의료기기를 갖추어 현대화되었다고 밝혔으며 또한 안동권씨는 사성을 받은지 올해로 1082년이 되는 해로써 명문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며 현 안동에서는 종친회 조직이 읍, 면, 동까지 지회가 결성되어 점차적으로 조직이 더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종친회와 병원간에 상호협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주나 안동성소병원 상임이사가 내년(2013년)에 권정달 대종원총재를 안동성소병원 이사 및 이사장으로 모신다고 밝혔으며, 이에 지난 1월3일 안동성소병원 법인임시이사회에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안동성소병원은 1909년에 개원해 현 직원(600여명), 진료과목(23개), 병상(706개)와 첨단의료시설에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행사를 마치고 20여분에 걸쳐 병원순회를 했으며, 단체로 기획부에서 사진촬영 후 병원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정담을 나누었다.

〈권혁세 기자〉

총재단프로필②

仁齋 權奇德 本院 副總裁

權 奇 德
(본원 부총재)

仁齋 權奇德 本院 副總裁(75, 밀양, 복야공파 36世)는 엄친 권오갑(權五甲), 자당 손소남(孫小南)의 7남매 중 장남으로 경남 밀양에서 임란의 충신·효자이시며 밀양 위량문중의 입향조이신 학산공(鶴山公. 諱 三變)의 12世 주손(冑孫)으로 태어났다.

권 부총재는 명문인 경북고와 성균관大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찍이 뜻한바 있어 교육계에 투신 '딸각발이' 청빈한 학자가 되기 위해 중앙대 강사로 교육에 입문해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대구대 심리학과교수·同 학생처장·사회과학대학장·학생생활연구소장·교무처장·중앙도서관장·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구대 맨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워지면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신체장애아동의 자기개념에 대한 부모지각의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영어회화 실력이 능통해 미국 애실랜드대학교 교환교수, 미국 루이빌대학교 객원교수로 크게 활동했으며, 더불어 평통자문위원으로 국가보위에 진력하기도 했다.

仁齋선생은 독실한 불교신자. 하심(下心)으로 '해탈의 길'을 걸으며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며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드리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며 맑은 정신으로 불심(佛心)의 세계에서 70여 성상을 '대로(大路)의 길'을 걸어 왔다. 순후무우한 중후한 인물로 대구지역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덕족친은 선조, 조상관념이 투철하다.

선대계보(先代系譜)를 살펴보면, 복야공파조의 26世孫으로 문탄공(諱 漢功) 도첨의정승의 23세손, 화원군(諱 仲達) 밀직사사의 22세손, 감정공(諱 執德) 군기감정의 20세손, 양산군사(諱 忖)의 19세손, 생원공(諱 繼福)의 18세손, 학산공(諱 三變)의 12세 주손(冑孫)으로 명문대사의 맥(脈)을 이어받았다.

생(生)에 '멍에'를 교육에 두고 학자의 한 길을 걸어온 씨는 국가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저서로는 특수교육학, 인간관계론, 인간과 윤리 외 5권과 논문으로 특수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신체상의 관한 연구 외 7권이 있으며, 슬하에는 이영희(李英熙)여사 사이에 장남 권순영(회사원), 차남 권순규(자영업), 장녀 권보영(언어학 박사, 대학교수)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경주청년회, 제22대 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권동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주청년회는 지난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주 월드웨딩뷔페'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권성범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 권혁만 회장이 권동찬 신임회장에게 '청년회 기' 전달, 권정달 대종원총재 격려사가 대독되었으며, 권혁만 前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다음 권혁만 이임회장의 이임사, 권동찬 신임회장의 취임사가 낭독되었다.

권오신 경주종친회장의 격려사와 권구훈친목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최양식 경주시장(안동권씨 외손) 권영길(경주시의회부의장), 권이달(도의원)의 각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권동찬회장이 신임회장단 소개와 뺏지 증정이 있었으며 2부행사에 들어가 송년의 노래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권혁세 기자〉

서울 청·장년회 신년회

▲2013.1.10. 서초구 '낙정회관'에서 서울 청·장년신년회 혁창회장이 인사하고 있다.(맞은편 고문진 가운데 서울고검 태호검사가 함께 하였다.)

서울 청·장년회(회장 권혁창)는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 서초구 소재 낙정(樂亭)한정식에서 혁용 전 임회장을 비롯 정수, 혁조, 영복 고문 등 족친회원, 신임회원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새해 신년하례 겸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오준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께 망배(望拜)하고 혁창 회장의 인사로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기해 회원족친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셔 소망하시는 사업 거듭 번창을 기원 드린다고 인사 한 후 한해 더 하라는 회원님의 메시지로 생각하여 연임 봉사를 다짐하였다.

이에 참석한 회원족친은 만장일치 힘찬 박수로 화답하였다.

아울러 내부 조직 개선으로 5년여 동안 우리 청년회를 위해 헌신봉사해온 오준 총무가 사임하고 후임 순용(추밀공파. 38世. 현 서초경찰서 서초1지구대 팀장)씨가 당 회 발전을 위하여 자진 헌신하겠다고 하여 회원들로부터 힘찬 박수로 총무가 되었다.

모처럼 참석 자리를 빛내준 서울고검 권태호(추밀공파. 33世. 충북 청원. 청주대 법학박사/춘천지검장 역임)검사와 권상택(추밀공파. 34世. 김포. 58년생 삼성화재), 낙정 한정식 여사장인 권창희(추밀공파 38世)등 신입 회원으로 소개되어 신년 초부터 '회'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덕담과 만찬이 이어졌다.

〈권범준 본원기자〉

삼성전자(주) 창립43주년 기념식에서 권오현 부회장 기념사

권오현(61세) 삼성전자 부회장은 1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행사에서 "전자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현재에 안주하면 한순간에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목표인 비전 2020을 위해 다시 뛰자"고 주문했다.

'비전 2020'은 매년 10%씩 매출액을 늘려 2020년에 4000억 달러(약 440조원)매출로 전자업계 1위를 달성하자는 목표다.

권 부회장은 이를 위해 ▲글로벌 5대브랜드 진입 ▲소프트 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강화 ▲창의적 조직문화확립과 우수 인재 육성 노력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행사가 끝난 뒤 직원들에게 지전2020 달성을 위한 직무별 지침이 담긴 '브랜드 플레이북'을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혁신을 추구하고, 소비자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중앙일보 11월 2일(B6면) 인용〉

길림종친회 제33차 정기총회

길림종친회(회장 권종희)는 지난 12월22일 오전10시, 춘하추동회관에서 족친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신총무의 사회로 올 한해의 권문의 대·소사를 토론하고 결산했다.

이어 권종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의에 들어가 종친회의 앞으로의 발전과 계획, 특히 권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또한 이날 권중인 고문(80世)이 <권문의 역사>·<권율 도원수>의 책을 발간해 나눠 주면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치고 오찬에 들어가 족친간에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했다.

〈권종희 회장〉

단신

▲능곡회(회장 권기덕)는 지난 12월22일 오후 6시 30분 안동 옥동 '바다양푼회관'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례회를 개회했다.

▲영주청년회(회장 권영순)는 지난 12월9일 오후 6시30분, 영주종친회관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1분명언

사람은 길이요, 스승이요, 향기 나는 꽃이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선연(善緣)과 악연(惡緣)에서 비롯되는 법이니 항상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을 하고, 차가운 말과 차가운 행동은 피하라.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무리를 불러 모으고, 별은 혼자 빛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사람이다. 〈편〉

• 동정

▲권이혁(前 서울대 총장·본원명예총재)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서울대동창회(회장 임광수)가 주최한 동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 118주년 통합개교 67주년 기념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권정달 총재는 지난 1월 1일 안동성소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안동성소병원은 1909년에 개원해 현 직원(600여명) 진료과목(23개) 병상(病床)(706床)과 첨단의료시설에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본원 고문이며 제13·14대 국회의원과 대한주택공사사장, 자민련 부총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인 권해옥씨가 지난 11월 24일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임명되었으며, 자유총연맹 고문,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선양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사)포럼 오늘(공동대표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조장옥 서강대 교수)은 24일 2시, 서울 마포 현대빌딩 대회의실에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초청해 '경제민주화의 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중석씨(66,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지난달 31일 통일재원 모금 민간단체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써달라며 1000만원을 쾌척했다.

▲권오엽 충남大명예교수(68)가 조선 숙종 재임기인 17세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쓰시마(對馬) 현의 침탈계획 전모를 담은 문서총집죽도기사(한국학술정보) 5권을 13권으로 편역해 냈다.

▲권오철 SK하이닉스 사장은 3일 시무식에서 창립30년을 맞아 올해를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권기동씨(회화작가, 권오창 본원편집자문위원 장남)는 지난해 12월12일~18일까지 서울 경운동 「갤러리그림손」에서 <2013년 빛낼 올해의 작가> 33인으로 선정되어 작품을 출품했다.